



광주시교육청, 목포신항만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념식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목포신항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념식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 다문화 5만...“이주여성 적극 지원”

다문화가족 출신 도청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 등 추진

전남도가 다문화가족원 5만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다문화가정 가구수는 1만5666세대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다. 가구원수는 5만1131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원의 4.4%(7위), 전남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1만34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국적 취득비용 ▲맞춤 취업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대다수 지원책이 가족센터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당 시·군 가족센터 모국어상담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김호기 기자

동구 경로당 70개소 냉난방기 세척 실시

“어르신, 올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동구는 이달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냉난방기 세척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기기 성능을 향상해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및 냉방 효율 증대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122개 경로당 중 에어컨을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한 70개소

를 올해 우선 세척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52개소를 완료한 후 격년제로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세척은 전문업체가 나서 열교환기·냉각팬·외관 세척·항균제 도포 등 기본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실외기 청소·공기청정기 세척·필터 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진행한다. 세척 완료 후 시 운전자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 연수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도 추진 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서식지 전수조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조사단’ 모집...24일까지 20명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시민과 함께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서식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왕다람쥐꼬리는 숲 속의 나무나 바위·너털지대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이다. 생김새가 다람쥐의 꼬리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진 양치식물이다. 왕다람쥐꼬리는 전남·제주 등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일부 구역에서도 서식지가 확인됐다. 공원사무소는 시민 식물조사단과 함께 공원 내 왕다람쥐꼬리의 서식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식물조사단 모집 대상은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식물 조사 경험이 있는 식물 분야 전문가다. 24일까지 20명이 모집될 예정이다. 선정된 식물조사단은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김도기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화순민연초등학교에서 가진 교육감 현장 소통 프로그램 ‘대중예술(敎通) 현장 출근’을 통해 미래 예술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문화예술 관련 인프

라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학교예술강사 운영 지원, 학교예술교육자문단 운영, 전통예술거점교육지원청 운영, 학교 밖 예술교육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호기 기자

광주경찰 또 음주운전...올 들어 5차례

광주경찰 자체 특별정보 기간 중 음주 사고

‘지휘 책임’ 엄중 문책 분위기서 여론 ‘뭇매’

광주에서 올해 들어 5번째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 소속 A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차방을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음

주운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비롯해 올해 들어 광주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5건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한 달 1번 이상이다. 앞서 서부경찰 형사과 소속 B경감은 지난 3일 오후 9시 20분께 서구 풍암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됐다. 지난달 1일에는 서부경찰 금호지

구대 소속 B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만취 운전 을 하다 단독사고를 내 적발됐다. 앞선 2월 2일에도 서부경찰 소속 C 경위가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탈미를 잡았다. 새해 벽두였던 올 1월 2일에는 북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D경위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탈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은 앞선 직원 음주운전 적발로, 이미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2차례 받았다. 특히 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 비위가 적발돼 집중 감찰 조사를 받아 서장급 문책성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경찰관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의 ‘지휘 책임’까지 따져 엄중 문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들의 각종 위법·일탈이 잇따르자 지난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광주경찰도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자 자체 특별정보를 내린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가 거셀 전망이다. 경찰관 노조 측은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도 지난달 8일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도기 기자

참사 10주기 앞둔 팽목항...전국서 추모 발길 이어져

‘이별 공간’ 팽목항에서는 답답함·한숨 여전

세월호 선체 거치된 목포신항도 먹먹함 가득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비탄과 통곡이 오래 전 떠나간 빈 자리를 바닷바람이 몰고 온 잔잔한 파도소리가 메웠다.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추모객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이날도 팽목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끝을 쉽게 잊지 못했다. 추모객들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 먹먹함에서 비롯된 한숨만 깊게 내뿜어 실 땀이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팽목항 방파제를 걸던 한 여자 아이는 주머니에서 노란 천 조각을 꺼내더니 철제 봉 주변으로 향했다. 고사리 손에 쥐어진 노란 천 조각은 여러차례 세운 매듭 끝에 어느새 어엿한 리본이 됐다. 아이로부터 리본을 건네받은 아버지는 말 없이 철봉에 리본을 묶은 뒤 아이를 업고 방파제를 걸고 또 걸었다.

상복처럼 검정 옷을 차려 입은 한 추모객도 팽목항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쳤다. 팽목항 주변 팽목기억관에서는 단체 견학을 온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또래 나이 때 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떠올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깊은 한숨이 이어졌다. 노란 리본에 ‘잊지 않겠습니다’ 등 글귀를 적은 학생들은 저마다의 팔뚝에 이를 묶고 팽목항으로 걸고 또 걸었다. 10년 전 이곳이 참사 희생자와 가족 사이 마지막 이별 장소였다는 흔적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빨간 등대와 방파제를 따라 늘어선 ‘진상규명’ 뜻을 담은 노란 깃발, 노란 리본 조형물만이 비극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남았다. 방파제 바로 옆에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터미

널이 새로 들어서면서 이곳은 더 이상 추모객들만 찾은 공간이 아니게 됐다. 점점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10년 전 질게 드린 비탄의 그림자는 처연함으로 변해 쉽게 걷어낼 수 없게 됐다. 선체를 처음 보는 추모객들은 크기에 놀라고 처참하게 녹슨 모습에 안쓰러워 했다. 추모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먹먹함에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먹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대전에서 온 신소연(35·여)씨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복잡하다. 처음 오는 팽목항 분위기에 압도돼 거대한 슬픔에 짓눌리는 기분”이라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기에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다. 멈춘 진상규명 시계가 다시 돌아야 할 때”라고 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주교육청 ‘1교 1독서’ 프로그램...322개 전체학교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전체 학교에서 ‘1교 1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322개 전체 학교가 최소 1개 이상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 운영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서구입비(표준교육비)로 34억 원, 독서교육 운영비로 13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독서 예산을 통해 풍부한 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경선 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데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교원 연수 현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포상 등 독서 문화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 ‘함께 서구’ 만들기

70명 아이들의 참신특특 튀는 아이디어 구정 반영



서구는 지난 1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서구청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9기 서구청청소년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권리

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 80명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위원장 수여 ▲2023년 구정참여단 활동 결과 공유 ▲분과 구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꿈꾸는 서구청’

조직(6개 국)을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정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청소년참여예산 신청 ▲구청사업참여(벤치걸기, 줄기 등) ▲역량강화워크숍 ▲정책바스켓 운영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아동 참여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구는 구정참여단의 제안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구정참여단의 제안 의견 13개 중 9개를 채택했다. 아울러 서구는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우수 참여단원에 대한 구청장상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배달음식점 496곳 위생상담...미흡 현장개선요청

광주시가 지역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담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15일부터 26일까지 피자·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49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2차 상담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의 ‘2024년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대비해 실시된다. 지역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이 참여해 ‘소비가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쉼터다...광산구 “공영 장례 강화”

장례식장·종교단체, 무연고자 추모·위기가구 발굴

광산구는 가족이 없이 홀로 숨진 1인 가구·무연고자에 대한 추모 절차 강화한다. 광주 광산구는 종교단체·장례식장·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과 함께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무연고 장례 건수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지난해 7명으로 증가

추세다. 광산구는 1인가구 고독사가 늘어나자 연고자를 찾지 못한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광산구는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인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장례 의식 없이 화장 장례를 치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식장은 무연고자의 빈소를 설치할 공간을 제

공한다. 기독교·천주교·불교단체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재단은 초과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월 야산에서 숨진 40대와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50대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한편 광주 지역 무연고 장례 건수는 2019년 29명, 2020년 30명, 2021년 44명, 2022년 57명, 지난해 90명으로 5년사이 3배가 증가했다. /이동기 기자

또 세균오염도조사(ATP)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 손과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비교해 손씻기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산가족정지를 활용해 기름의 산해도를 측정해 올바른 튀김용 유지 사용과 교체 시기도 안내한다. 위생관리 미흡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배달음식점(즉발·보살) 위생관리 1차 컨설팅을 통해 총 321개소 중 미준수 143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김도기 기자